

삼성-광주 창업기업, 新사업 발굴 나섰다

市·삼성전자C-Lab '삼성 스타트업데이 광주' 공동 개최 사업화 모델 발굴·중장기 협업·후속 투자 지원 등 공유

삼성전자C-Lab과 광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사업 발굴에 나섰다.

광주시는 삼성전자C-Lab과 함께 24일 치평동 삼성화재 사무사옥 20층 C-Lab 아웃사이드 광주에서 지역 30여개 창업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 스타트업 데이 광주'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공동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한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의 '인공지능(AI) 비집음 혈당 진단기' ▲링커버스의 '사람 손톱 AI 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테브엔리미트의 'AI 모션 캡처 기술 기반 케이팝 댄스 게임 플랫폼' 등 지역 창업 기업

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 발표가 펼쳐졌다.

특히 지역 창업 기업과 삼성전자C-Lab 간 1대1 만남의 장은 이번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5 C-Lab Outside' 공모전에 참여할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교류(네트워킹)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국내 최대 창업 초기기업 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전 대표가 창업 생태계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삼성전자&스타트업 협력사례'에서는 이대화 닥터테일 대표가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 스마트TV에 AI 기반 반려동물 상담 플랫폼을 탑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발표, 지역 창업자



'삼성 스타트업 데이 광주'가 24일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사무사옥 20층 C-Lab 아웃사이드 광주에서 열려 지역 30여개 창업 기업과 관계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삼성C-Lab 아웃

사이드 광주'는 해마다 광주지역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1억원의 사

업 지원금 지급, 1년간 사무 공간 무상 제공, 업체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 성장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협력과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삼성전자 C-Lab 아웃사이드 광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열어 광주 창업 기업 8개사를 선발·지원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광주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앞서 대기업과 창업 기업 간 사전 교류 행사를 매월 개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올해 조광페인트, IBK장공, 효성첨단소재에 이어 호반그룹, HD현대삼호, 메가존클라우드 등 대기업 13곳 이상이 '개방형 혁신전략'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들의 혁신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강기자

유기농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박차'

전남도, 9월까지 치유농업 연계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 소득에 보탬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유기농업 확산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3년 기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는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마을 대표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생태마을별 농가 수, 친환경 인증 현황, 매출액,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실

적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2023년 말 기준 유기농생태마을 전체 경지면적 3천520ha 중 1천95ha(55%)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규모다.

전체 농가 2천32호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1천21호로 52%를 차지했다. 친환경 인증 면적(1천95ha) 중 유기농 인증 면적은 82%, 친환경 인증 농가(1천21호) 중 유기농 인증 농가는 76%로, 무농약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다만, 전년보다 마을당 평균 인증 농

가 수는 1-2호 정도 줄고 총매출액도 283억원으로 마을 당 122% 줄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마을 우수 자원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나주 계량마을의 경우 막걸리, 두부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해 2023년 2천200만원에서 2024년 3천300만원으로 소득이 늘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을 접목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1면 '전남권 의대'서 계속

특히 그는 "국립목포대학교는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목포시민은 지난 3년간 의대 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왔다"고 목포대의대 설치의당위성을 강조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고, 생산유발효과 2조4천억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2만3천여명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의원은 "전남도가 2021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 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남 서부권의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의 B/C는 12.6-14.4로 나타나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김문수·김원이 의원에게 '전남권 의대 설립'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해온 전남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설명만 한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향후 소위 등에서 어떻게 검토가 이뤄질 지 지켜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문화예술 분야 협력

광주시립미술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체결

광주시립미술관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4일 시립미술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문화 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할 수 있는 AI 기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AI 기반 문화 예술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협력 ▲양 기관 협업을 통한

자원 교류와 기반 시설 활성화 도모 ▲양 기관의 대외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와 정보문화기술(ICT)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할 수 있는 창의경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됐으며 웹툰·애니메이션·영화·음악·공연·게임·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AI 관련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현대미술과 수학, AI를 융합한 전시 '우주의 언어: 수와 AI를 활용한 시민 친화형 체험 전시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을 열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AI를 연계한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는 AI 대표도시이자 미술도시로 AI와 미술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길고양이 보호 관리 문화교실' 운영

광주시, 내달 24일 시청 무등홀

광주시는 24일 "길고양이와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8월24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시청 무등홀에서 '길고양이 보호 관리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보호 관리 문화교실은 ▲길고양이 사정작가(길고양이 사진작가)의 '길고양이 돌봄 방법 바로 알기' ▲조운주 수의사(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고양이 건강' ▲신수경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 체PNR)의 '길고양이 돌봄 갈등 법적 해석'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길고양이 보호 관리 문화교실'에 광주시가 선전돼 진행되는 것으로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

육을 들을 수 있다. 참가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줌(ZOOM)에 접속해 온 가족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접수는 동물사랑배우터 누리집(<http://apms.epis.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남태욱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동물복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보호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역앞6차선대로변 상업지 최고요지
480㎡ 2층건물 급처분14억5,000 시세반값

금호동1800세대아파트입구 대로변코너 대지309㎡
3층건물 건평807㎡ 급매 23억(보6,500월710포함)

아시아문화전당 대로변코너 최고요지
대지1,400㎡ 4층건물 급매62억
(보1억6,500월2,200만원)승강기, 주차30대
시세5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